

2002년
7월 15일
제 47호

춘천성시신문

나침반

교회갱신·부흥·복음화운동
교회연합일치운동
새로운 도시모범시민운동
세계복음화 기도운동

예수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1998년 9월 15일 창간 발행인 윤철중 http://www.holycc.org Fax.033)257-1260 Tel.033)256-1260 춘천시 효자2동 373 90 (T 200 091)

전시민 대상 총력전도에 나선 성시본부

- 38개 초교과 교회와 훈련받은 대학생팀 4일간 전도 -
- 2000년부터 매년 7월초 가정, 직장, 거리 집중전도 실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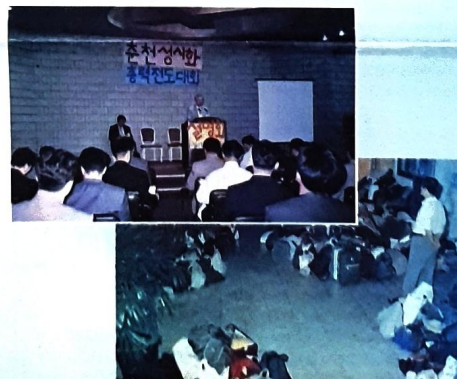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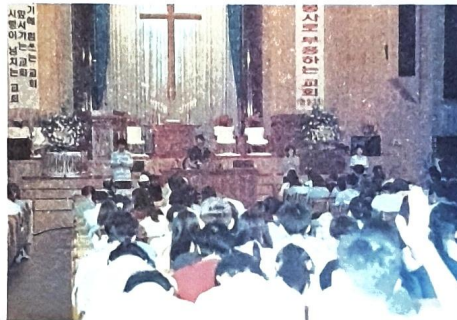
춘천성시화운동본부(본부장 윤철중 목사)는 7월 5-8일까지 춘천기독교연합회(회장 김장수목사)의 후원하에 전시민을 대상으로 일주일간 가정, 직장, 학원, 거리전도를 실행하였다. 이번 총력전도에는 37개 교회가 동참하여 열심있는 전도자들과 함께 적극 나섰으며 잘 훈련된 전국 대학생 전도자들을 지원받아 효과적인 전도를 할 수 있었다. 전국 대학생 전도요원들은 훈련대령명도에서 일주일간 전도전환 교육훈련을 마친 다음 7월 5일 교회들이 지명한 버스로 춘천석가리교회(임택장 목사)에 도착, 발대예배를 드린 후, 계획된 교회로 파송받아 3박4일간 기거하면서 교회의 전도인들과 한팀을 이뤄 무더운 날씨에도 개의치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전도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전력을 다했다. 대학생 전도자들은 4일간의 전도일정을 무사히 마쳤으며 내내에도 총력전도는 계속될 것이다. 이번 전도는 춘천시민 5천명 이상을 전도 목표로 정하고 수백개의 전도팀이 집중적인 전도를 실행한 것이다. 성시본부와 대학생전도, 직장전도, 유흥클럽은 총력전도를 준비하면서 지난 5.6월 매주 목요일기도회와 특별기도회를 통해 시민 구원을 위하여 중보기도를 드렸으며 전국 유흥클럽에서 강사를 지원, 전도에 힘을 불어 넣었다. 기도내용은 "방해하는 사탄의 세력을 절박, 성령의 역사로 충만한 전도대회가 되게 하시고 교회와 먼저 믿는 자들이 도시의 죄를 나의 죄로 알고 회개하게 하소서. 5천명 이상의 불신자들이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기도문과 전도의 문이 열리는 계기가 되기를. 춘천이 복음화로 변화되어 살기 좋은 거룩한 도시, 성시화 되기를. 춘천이 속히 복음화 되어 복한을 품게 하시고 통일 후 북한선교의 전략도시가 되게 하소서. 교회와 전도팀이 협력

하여 총력으로 전도할 수 있기를. 전도자들이 성령충만한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품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교회와 전도자들이 동역을 이루고 겸손히 섬기는 마음을 갖게 하소서. 도시의 구석구석 찾아가 복음을 담대히 전하게 되기를. 날씨와 건강을 지키시고 믿음으로 전도함으로 영광을 돌리게 하소서. 성도들이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전도자의 삶을 실천하는 기쁨으로 함께 하소서. 교회안에 체계적, 조직적, 실천적인 전도훈련이 일어나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지속적인 전도를 위한 기반이 조성되게 하소서"라고 전심으로 기도했다. 이번 성시화를 위한 총력전도에 지원한 훈련된 전도요원들은 모두 417명으로서 서울(사)15, 서울(북)20, 서울(동)20, 경기성남30, 수원50, 안양40, 안산50, 부천30, 인천24, 용인20, 평택안성15, 부산40, 춘천63명이다. 참여한 교회는 가정침례교회, 선교중앙침례교회, 시온성교회, 은누리장로교회, 반석감리교회, 광진장로교회, 순복음호반교회, 새비전장로교회, 사우동장로교회, 우두장리교회, 대명장로교회, 청목교회, 은성장로교회, 춘천그리스도의교회, 서부감리교회, 아멘순복음교회, 성산장로교회, 호반장로교회, 성광장로교회, 순복음춘천교회, 한사랑침례교회, 남춘천그리스도의교회, 중앙성결교회, 선교제일교회, 강남장로교회, 남춘천순복음교회, 사랑의침례교회, 새로남장로교회, 열린순복음교회, 석사감리교회, 광명감리교회, 베드로순복음교회, 초원순복음교회, 시온성결교회 등 38개 교회이다. 이와 같이 초교과 교회와 연합하여 복음선교 명령을 열성으로 이행하는 사역에서 진정 시민을 위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고 춘천성시화를 이루어 가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됐다.

총력전도 실적

순(지역별)	전도	영접	성령소행자	LTC교육
1대순	793	324	19	170
2대순	1494	377	36	48
3대순	962	407	30	90
총계	3,249명	1,108명	85명	308명

[사진촬영, 제공: 홍종진 집사]



인도선교정부지역 개발사업과 함께 추진

- 인도정부 강원도 농업 공무원, 교수협조 요청 -

춘천성시화운동본부(본부장 윤철중 목사)가 인도선교사로 파송해 인도비하르주 파트나에서 사역하고 있는 이영길 선교사는 2000년 부터 인도지역개발사업 특히 쓰레기리, 농수문제 해소를 위하여 지역개발기구(CID)를 설치하고 인도 유령교수진과 함께 지역개발사업에 관한 연구에 착수. 인도정부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따라서 인도정부는 '인도농업생산성 제고위원회'를 만들고 이영길 선교사를 위원으로 위촉, 활동을 보장하고 있다. 동위원회는 농업 생산성 제고를 위한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위하여 농업선진국인 우리나라의 강원도 농업관계 공무원을 파견 또는 인도를 연수

등의 방법으로 일정기간 지원받을 수 있기를 요청하고 있으며 농업관련 교수 초청 세미나를 개최할 계획이다. 강원도의 발전을 위하여 선진국 또는 후진국과의 다양한 교류협력이 필요한 시점에 와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인도 비하르주는 현재 1억이 넘는 인구를 가지고 있다.

이영길 선교사 현지주소: Ram Nagri Cooperative, Sector 1 Centre for Integrated Development Asiana Road Patna 800 025 Bihar, India

연락처: (T) 91-612-588768: 582723

E-mail: jfpatna@yahoo.co.kr / ci_patna@hotmail.com

월드비전 제2회 사랑의 모금만찬

- 통일영원 남북한 강원도민 사랑잇기 특별캠페인 -
- 도내 각급 기관 단체장, 교계지도자, 시민 200명 -

월드비전 강원지부(서광석 지부장)는 7월 18일(목) 오후 6시 30분 두산리조트 다이아몬드홀에서 도내 각급 기관장, 사회단체장, 교계지도자들을 초청 '제2회 강원도민 아주 특별한 사랑나눔기 특별 캠페인 사랑의 모금만찬'을 개최한다. 이는 강원도와 북한의 굶주리는 어린이들에게 희망이 넘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주님께는 통일한국의 기쁨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 동만찬은 월드비전의 국내외 사업보고를 통해 남북한 및 지구상에 고통받는 어린이들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만찬과 친교의 시간을 갖는다. 기념식은 안형순 강원도민일보 사장의 개회사, 오재식 월드비전강원지사장, 김진선 강원도지사 격려사, 강원도의회의장 축사, 오재식회장 성금전달(장학금), 한장수 도교육감 인사에 이어 서광석 강원지부장 영상보고, 독창 및 합창연주가 있고 참석자들의 사랑나눔기 모금과 임택장 목사(월드비전 춘천지부장)의 축복기도로 마치게 된다. 우리 주변에는 굶주림과 어려운 생활로 고통당하는 이웃이 많다. 이 사회의 지도자적인 위치에 있는 이들 뿐 아니라 뜻이 있는 시민들은 누구나 사랑나눔기 행사에 참여해야 할 것이며 특히 목회자와 장로는 적극 동참해야 할 것이다.



▶ 춘천기독교장로회연합회(회장 박성준목사)는 매월 마지막 주 화요일 낮 12시, 동무장로교회에서 정오예배를 드린다.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순복음춘천교회

담임목사 김 주 환

강원도 춘천시 동면 만원리 595-1 / 교회사무실: TEL.(033)253-2741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춘천중앙교회

담임목사 윤 철 중

강원도 춘천시 죽림동 86-7 / 교회사무실: TEL.(033)256-3537
교회 홈페이지 http://www.chjeil.org/

기독교대한감리교회 춘천석사교회

담임목사 임 태 창

강원도 춘천시 석사동 360-1 / 교회사무실: TEL.(033)261-6823

기독교대한감리교회 평화감리교회

담임목사 한 군

200-853 춘천시 동면 장학리 791-1(후평동 시내버스 종점 앞)
TEL. 교회사무실 241-5621 FAX 241-5622 / 목사관 255-8525

대한예수장로회 춘천중앙교회

담임목사 사 공 정

춘천시 폐계동 669-2번지(폐계동 통사부소 옆)
교회사무실 ☎ 257-2001 FAX 257-2002 / 목사관 251-2002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춘천소양교회

담임목사 이 원 호

강원도 춘천시 요산동 114 / 교회사무실: TEL.(033)253-2004
교회 홈페이지 http://www.soyangchurch.com/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춘천제일교회

담임목사 박 상 철

강원도 춘천시 석사동 679-1 / 교회사무실: TEL.(033)262-6881

대한예수장로회 늘사랑교회

담임목사 정 재 호

춘천시 후평2동 67-11번지 / 교회사무실 TEL.262-8219
늘사랑교회 홈페이지 http://www.everloving.or.kr/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사암중앙교회

담임목사 최 상 도

춘천시 동내면 사암1리 1174번지 / 교회사무실 TEL.261-7727
사암중앙교회 홈페이지 http://www.saam21.org/

지나던는 월드컵 축제
로 대개국코판만 나라
는 새끼가 돼버렸었다.
한국의 월드컵 대표팀이
세상에 태몽의 눈으로 감
자지 동경했기 때문이었다.
심쳐 30대에 육박하
는 뜨끈 열기 속에서
붉은 악마들의 열풍은
붉은 세상에 미치자
기에 충분히 기여했다.
이에 도전이나 하듯이
서러움이라는 태몽이 한
지만 세력이 미미해서 동
나갔다. 또 다른 태몽 차
고도 있었다면 곧
러리리라. 하지만 우리
들은 월드컵이나 태몽양
태몽 뛰거나 아니다. 2006
한나라의 이름이나 있을
는 자들을 잡아 욕에 가
던 사울에게 몰락하던 태
몽이다. 도대체 태몽도
꿈은 무엇이었기에 고
사울을 뒤집어 놓았는가?
남에게 특성이었던 사
유내에서 만나라는 불
기이다. 나무에 달려 죽
주려한 사라진 자라고
남에게서 도려 버리신 자
만 하면 모든 것이 끝
남에게서 다시 살리신 예수
박하고 죽은 자들이 바
나. 사울은 태몽의 한

적적인 모습을 심사할 수 있겠다. 대안가회의이다. 춘천지역에 3백여 명의 고·중 38개 교회만이 전도에 동참했고 나머지들은 불참했다는 사실이 일시에 대면해 주고 있는 것 같다. 각기 방법이 다른 방법으로 전도할 것이라 믿는다. 그러나 모든 교회와 협력하여 일시에 전도를 실행하였다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을 것이 아닌가 한다. 한국교회가 침체 내지 감소현상을 보이고 있는 반면, 천주교는 증가하고있다 한다. 천년만물계에 따르면 천주교 인구의 6.8%증가 인수가 442만8천명으로 3.9%증가한 것과도 상응하지는 않는다. 3.192명으로 2.4%증가, 본당사무부는 1,258으로 30년 늘었다. 전도는 모든 신자들에 능하고 싶지 않다. 한다. 입으로 복음의 비밀을 알게 하고 나니 삶을 보고 교회 구원되도록 해야 한다. 것으로 교회 신자들에게 전하곤 책무이다.

있었다. 농어민들은 비찌뭇을 흘리며
삶의 현장에서 한겨울하늘에 더도
그다지 않고 회색처럼 아름다운 곳을 벗어난
한가롭게 수련이 된 명목으로 인생을
즐기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제 차례로
한 부인과하고 할 수 있었으며 스
로가 자제하고 있는 교회의 지도자는
대단 얼마나 된 것인가가 궁금하다.
교회의 신가 불빛을 보고 남비라고
비난하는 시민이 있는데 그들은 닷하
는 것으로 일관한 것인가. 7.8월은 모
든 교회가 인권화해 위해 국내외 뭉
쥘양자를 찾았다. 돈과도 힘과도 뭉
내는 모스를 삼가고 겸손으로 본되
는 크리스찬들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번 수련기간을 통하여 거듭난 모습
으로 우리 사회와 살아가는 지도자의
의치를 교수할 수 있는데 교회들 마다
보는 시각이 달라지지 않을까 싶다.

형평전 목사(순천침례교회)는 침례신학대학 및 동 목회
 훈련원을 졸업한 뒤 이광재가 교단 훈련에서 목회 사역에
 헌신하고 있다. 지성과 영성, 교도와 투혼 두루 갖춘 목사로
 순천지역 복음화와 성서와 사역에도 남다른 열정을 가진
 사목교회의 대표자로 목회하고 있다. 또한 소그룹과 불쌍하고
 쓸쓸으로 많은 이들의 손길의 대상이 되고 있다. 건원일보
 지인신문소 설립 추진자로 한국교회연합 강연자이자, 순천
 교역연합회장을 역임하고도 현재 순천지방법원 조정위원을
 역임하고 있다. ▲순찰 대우와장 ▲성서강해집 예배소서, 창세기 ▲
 ▲▲성결교회 비하의 연설 등을

1

- **존헌동양성학교외(원협동 담임목사)** 유지, 주동부, 초동부 여성성경학교가 7월 21(주일) - 23일(화) 본교외 부속에서 열리며 중동부부 여류수련회는 오는 8월 5일부터 8일까지 '내가 바울을 세우리나' 주제하에 삼척성경교회에서 개최 예정이다.
- **존제지일장로교회(박성호 담임목사)**는 7월 22일(월)부터 24일(수)까지 남산면 방재리 기와초등학교에서 '삶의 중심이신 예수 그리스도'란 주제로 '제3회 전교인수련회'를 개최하고 청년대회는 29일부터 31일까지 경북 봉화에서 위치한 명호제일교회에서 수련회를 개최 예정이다. 박성호 담임목사(한국기독교 순교자교회) 강권지회는 7월 8일(월) 진남순교대교회에서 한국 순교자 교회 지파장 회의에 참석했으며 지난 7월 9일(화) 오지 5회 주중종교개혁사 열린 대한애국교조교로 교회 1회 교리운동 강권지역본부 조직 및 건축예배에서 삼임창무로 임명되었다. 동교회회는 원주바른교회(최철원목사)에 건축위원급 3인 임명을 원고하였다.
- **존헌동원리교회(장성문 담임목사)** 유지부와 초동부 전학녀 여성성경학교가 7월 21일(주일)~24일(수)까지 '평화를 만드는 삶'이라는 주제로 본예배에서 있으며 8월 11일부터 14일까지 화천 아미공동회에서 중고등부 수련회가 개최된다.
- **인도 비리온 데글루비 기도인도전단**은 9월 16일~28일 11일 인도 비리온주의 10개 도시를 돌며 기도하는 도시가 화려했던 소 프레스터를 생행한

물고기의 IQ는 0.3"이라고 누군가
 한 말만 기억한다. 그 정도의 지능
 으로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만
 알고 다니면서 일이라는 입만 뻗고 뻗
 고대며 돌아다니는 것이다. 그러다가
 누가 먹이라고 주면 먹지없이 삼켜버
 리고, 그리고 지렁이를 두꺼비한테 뱉
 아던 가리지 않는다. 얼마나 청신없이
 살아 다니는지 그나마 깨어 하늘로 글러
 떨어지도록 아랑곳 하지 않는다. 그
 어이를 따를 일 마치 주위를 뱅뱅
 맴돌 따름이다. 제반면 그그도 황홀경
 에 들어가는 천국이라고도 생각하
 고 있겠지! 물고기들에게 현실의 배
 행을 알릴새 벼들이나 선지자들이 없
 어! 그들의 착각은 영원히겠지! 우
 리 주위에 물고기의 IQ를 가진 자
 리 많다. 대문에 독한 천, 하지만
 물고기들의 사살일 따름이다. 뇌물이
 있는 미끼만 보면 청신없이 찾아다니
 는 정치를 통해서 그그도 돈만 되는 일
 이면 지속적이 쫓겨가서 울지하려는
 돈벌레들이 그그다. 교회 역시 물고기
 사촌들이 많이 살고 있다는 소문은

이다. 이것도 유행이라고 따라하지 않
 으면 평생 취급받고 정신 위장하러
 다. 세상을 모르니 순진한 어린애라
 나 하며 오히려 망신주려 대든다. 오
 직 꿈이없는 낚시대에 대대대물 맷달
 리 맷친 비행을 꿈꾸면서 말이다.

이제 물고기를 제정하다. 지난 달
 13일 지방자치 선거일에서 물고기들
 에게 투표한 자들이 많았다 한다. 사
 기군, 곡백면, 강간면인 물고기들이
 당선이 되었다! 그리고 물고기들에게
 투표한 자들의 IQ는 과연 얼마나 될
 까? 0.3이라는 틀림없이 한계 망
 하기를 소망하는 자들과 함께 어
 너움을 갈질 수 없는 일.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바를 없는 것인가? 몸을 포
 도주르 바를 없는 기척은 나타날
 수 없다. 팔자다. 세상이 넓어지면 소
 인자들이 일할 때가 지금이다. 그러
 고 우리의 지능을 테스트 할 때이다.
 지능을 높이기! 지혜의 근본이 여호와
 와 하나니성을 경외하는 것이 유일한 방
 법임을 깨닫는 자. 행하는 자들이 되
 자! (adonaijan@hanmail.net)

내가 가장 많이 쓰는 질문은 이런 것입니다. "나의 삶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또는 "이 세상인 상황에서 하나님이 내 삶에 내어주시는 일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저는 이 질문을 항상 그리고는 드리는 미아이는 이렇게 하였습니다. "별이 없는 어느 날 밤 이슬먼데 애를 졸고 있고 있을 때였습니다. 나는 갑자기 서서 일어나는 한 사람에게 호소할 길이 어떤 밤에는 놀라운 대로 창구로 뛰어 갔습니다!" 하고 물었습니다. 오늘날은 자기 대가 셋이 보았지요! 세 두 대가 일렬로 나란히 서서 아난이 거짓됨 보일 때 창구의 입구를 장막이라 거짓낼 수 있는 한계에 온 것입니다. 리고 대가입니다. 이 삼행들름은 미아이는 나중 에 다 알고 자기 슬을알았나.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할 때는 언제나 내 가지침을 항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내적인 마음의 움직임을, 둘째는 하나님의 일과에 있어 첫째는 한양의 주체입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에 그리고 일과 안에서 자기의 뜻을 알았나. 이 세 가지가 일일이 가리키는 것 다 일을 시작하지 마십시오. 오! 내 사람이 내게 대로 우리 하나님의 뜻을 계속 하라! 한탄과 하나님의 뜻을 본받아 법을 배워라! 미아이는 미아이는 오! 한양에서 내게 지어줄 우리 세가 세워라! 일 좋은 건고입니다."

지난 6월 27일 춘천선사화복요기도회(대표 조재성)의 강사로 초청된 안인영 장로(세리클럽전국연합회 상임부회장)는 춘천에서 화복운동회를 경험한 뒤 "선사생활 모습과 목표가 근본적으로 달라졌다"고 말한다. 그는 37세에 교회 생활에 뒤처졌고 성실히 교회생활하는 것만으로 만족하는 "이만하면 됐지"의 신앙이었는데 95년 춘천에 부임한 후, 성실한 운동을 깊이 알고 전심전력하는 길은 화복의 장로이며 겸사강사인 전용태 장로를 만나 그의 권유로 성서의 운동에 전심하게 되었다고 열심으로 전신화복을 하고 본인의 신앙수용을 점검하고 성서회제일주의 신앙으로 변모하게 되었고 그 후부터 모든 것을 우선하여 오직 전신화복에 헌신하고 있다고 했으며 춘천의 목회자와 다르고, 직적인 성도들은 성서에 흠뻑 젖었다는 것을 느꼈을 수 있다고 하였다. 2년3개월 동안 춘천에서 성서화복 운동을 경험하였을 뿐만 아니라 앞장서 전력을 기울였으며 흘리려 배, 애송도 20대가 넘는 단체들을 조직하고 그를 만나는 사립민선 주구나 예수당을 영접했다. 대천지방병원장으로서 전출한 첫차부터 목회와 강도, 기적, 기념제들에게 성서화복을 전했고, 대천교회 등에서 수심까지 성서의 특강을 통해 역

1990년 12월 여느날같이 다른 직장처럼 강연장에도 선교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어떤 장로의 말을 전해준 동료직원이 있었다. 지나치나니 거센 울음 길에 컸는데 그저 대수직이 없게 되어 갔고 앉았으나 당시 장로였던 다른 여느 같이 자립준고 생각로 변화(회)에서 직장생활에 대해 적극적으로 책임을 지었다. 그래서, 드레에 선교회가 없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지. ‘참 잘나’ 같은 이름이 많았을 때였고 잘 아는 신자들이 찾아 댔을 것이고 그들의 동의와 협조로 약 57명여만에 강연장이 생겼고 이제 처음으로 역사적인 도청기독교장로회와 신자들과 함께 되었다. 회에서 목회자를 시작한다. 초창기 한, 동인인 인접해 있는 강원지방장로회(당시 도청기독교) 기독교인들이 함께 연합하여 선교회를 했으며, 또 민족선교회를 설립하여 감동목회를 추진, 오늘에 이르는 것이다. 이 모습 김광남 장로와 한성호 안수집사는 천천기교회연합회 부회장을 맡아 춘천지역 모든 직장의 목회자를 위해 힘쓰고 있다. 도청기교회는 2020년 8월 2일, 3월 28일 춘천민회장을 역임하면서 당시 기교에서 대표자를 고계 장로들이 함께한 성경공부 전도회는 1972년에 시작된 유망교회연합회 성서학회를 되살리기 위해 조해와 연합 내세움을 개최하고 ‘기광문화대학원’이라는 이름으로 ‘천여명이 사할줄은 온도의 출생과 함께 사할 줄을 가진 민족의 길’이라는 의미를 새겨서 추진하게 되었다. 이 길에서 춘천지역 사역, 교회는 도청을 비롯한 각 직속선교회를 감동하게 있었다. 도청과 감동성교회를 만들고 연합회를 이끌어 성서와 사역을 감동하게 된 것은 함께 지니실 수 있는 한 한의(회) 함께한 성령의 역사하신 결과라 믿는다. (강원도교회연합회 초대회장)

아름다운 첫눈이 촉촉히 내리기 시작합니다. 이런 일 때문에 하나님의 천국의 순환이 없는 지옥들에게 나타납니다. 그들은 아름다운 천국을 사해하고 형제지마시요. 아름다운 천국은 아들이었으니, 지옥은 주 안에서 발견되는, 그의 천국에 사해하고, 아름다운 천국은 모든 천국과 천국의 천국에, 주님께는 없이 무엇인가를 본받으십시오. 아름다운 천국은 없는 이들의 곁에 붙지 않고, 주님께 그것을 복으로 받으십시오. 그들이 온전히 있는 열매는 열매까지도 부끄러워합니다. 빛으로 본받아야 복되다는 모든 것은, 주님께가 없습니다. 주님께는 모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23-24)

한 결과, 대진성시화운동본부와 대진 협회협의회를 창립해 모았다. 또 전국인화회를 설립하여 모든 도시의 성시화운동을 위한 진지조사를 만들었다. 양강군은 대진성시화회에서 범지구 않고 부산성시화를 가짜에 곁에 끼고 하더라도 대지하 불가운했다. 당시 부동점집합으로 승진발령을 받았다. 당시 부동점은 북쪽북쪽10%이내로 많은 교계지도자들은 성시화나 진도가 거의 불가능하다 생각했다. 그러나 대진성시화운동본부와 대진성시화운동에 관한 대화와 기도, 성경공부요임을 깨닫게 한 결과, 성시화의 필요성을 깨닫게 되면서 부산성시화운동본부와 부산출발리얼임을 창립하게 되었다. 현재 서울에 위치한 로고스대법원인 변호사 사무실에서 진지조사와인 성시

화운동에 혼신을 다하고 있으며 국내외 성시화를 위해서라면 최후의 순간

달려가고 있다. 주님은 각자에게 달란트를 맡겨 주셨고 우리는 그것을 수습해서 남겨야 함으로 내게 주신 모든 역량을 다해 착하고 충성심 충이라는 칭찬을 받으실 작도록 25일라트를 받은 자의 신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간곡한 부부의 말을 남겼다. 사실이었을 만큼 한신도 믿성하지 말고 불침규야 건강에 계몽, 달란트를 활용하여 진도한 것을 권했으며 동창한 믿는 성도들은 것을 깨달음으로 도전을 받았다.

처처에 복음을 전하라



정경호 장로
춘천C.C.C 대표

“처처에 복음을 전하라”(눅9:6) 이는 우리 주님의 지상명령이다. 이 명령에 순종하여 7월 5일부터 8일까지 춘천성서화운동 및

여름날을 낚고 여섯골을 먹었다. 플러스, 마이너스 계산을 하면 순산한 골은 두골을 낚은 것이다. 두골을 낚기 위해 온 국민이 용인을 하였다. 인터뷰를 한 선수들은 한결같이 국민의 성원과 용인을 힘을 얻었고 좋은 성적으로 감사한다고 말했다. 월드컵의 결과로 백성들의 한이 풀렸고 모두 기뻐하는 국운상성의 계기가 되었다. 감독과 선수 그리고 온 국민의 단합된 힘이 좋은 결과를 얻게 된 것이다. 히달리감독은 한국축구의 발전을 위해서는 유소년축구 활성화를 비롯한 지역확대를 강조했다. 포스트 월드컵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 스포츠, 신문방송, 정치, 경제계가 민감하게 월드컵 이후를 자기들의 이익과 연결하고자 하는 노력이 가장 두드러지고 있다. 교회는 무엇을 할 것인가? 우리는 꽃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는 선수와 같다(빌

3:14). 바울은 디모데에게 경계하는 선수의 삶을 강조하고 있다(딤후2:5). 춘천의 300여 교회와 한국교회는 새로운 도전 앞에서 있다. 90년도 이후 교회성장과 개혁이 어려운 상황에 되었다. 하나님과 교회는 끊임없이 세로 분열하여 성장과 성숙이 일어나지 않는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것은 성경의 법칙이다(시126:4). 우리 사회는 다양한 제정으로 이해관계 속에 얽혀 있지만 월드컵으로 하나가 되었다. 우리 교회는 무엇으로 하나가 되고 무엇으로 힘이 모아져야 하는가?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이신 한 분이니 하나님께서 만물을 통일하신다(엡3:5-6).

첫째, 복음전도운동으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 교리나 교회 정치, 예전은 교단 교파간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최인이 구원받은 복음은 하나다. 온 교회와 온 성도들은 복음전도운동으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는 선수와 같다(빌

3:14). 바울은 디모데에게 경계하는 선수의 삶을 강조하고 있다(딤후2:5). 춘천의 300여 교회와 한국교회는 새로운 도전 앞에서 있다. 90년도 이후 교회성장과 개혁이 어려운 상황에 되었다. 하나님과 교회는 끊임없이 세로 분열하여 성장과 성숙이 일어나지 않는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것은 성경의 법칙이다(시126:4). 우리 사회는 다양한 제정으로 이해관계 속에 얽혀 있지만 월드컵으로 하나가 되었다. 우리 교회는 무엇으로 하나가 되고 무엇으로 힘이 모아져야 하는가?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이신 한 분이니 하나님께서 만물을 통일하신다(엡3:5-6).

단기선교의 이해와 실재



황병호 장로
춘천제일장로교회
강원대학교 교수

21세기를 맞이하여 또 하나의 새로운 선교의 패러다임은 단기선교(Short-Term Mission)이다. 교공과 문화의 발달과 함께 삶의 형태가 다양해지고 경제적 여유와 해외여행 자유와 이동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단기선교가 새로운 형태의 선교운동으로 등장하였다.

이 운동은 처음에는 학생선교운동의 하나의 사역형태로 시작되었으나 지금은 대다수의 선교단체 및 교회청년대학생 뿐만 아니라 다양한 계층의 일반인들을 선교운동으로까지 발전하고 있다. 이렇게 단기선교가 활성화되는 이유는 여름과 겨울방학 혹은 특별휴가 기간을 이용하여 누구나 쉽게 참가한 선교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여러사람들과 함께 팀사역을 할 수 있어서 장기선교보다도 선교활동에 대한 부담이 적고, 선교사로서의 자기발전과 하나님의 부르심을 시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현대 세계선교에서 단기선교의 발전에 영향을 준 사회적인 원인으로서는 포스트모더니즘(Post-modernism), 개인의 자유주의, 재정적인 여유와 기독교인의 증가, 선교경비 및 자료의 개발과 공유, 그리고 언어의 장벽 등 여러 가지가 있다. 단기선교의 특징은 첫째, 스스로 자원하여 헌신하는(Voluntarism) 성격으로서 학생선교 자원운동의 본질에 매우 가깝다. 단기선교는 팀주에서 선교사역 실행과 지원 등 모든 과정에 이르기까지 자원하여 참여하고 협력하고 헌신하는 사람들로 구성되기 때문에 선교운동에 매우 효과적이다. 둘째, 장기선교로 모집하는 평신도들을 선교동원하는데 매우 중요한 프로젝트이다. 특히 오늘날 문자정보 보다 영상정보에 익숙한 젊은이들이 선교현장을 직접보고 경험함으로써 경험주의적 실재적인 교육을 받고 자란 신세대들이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 아래 현실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려는 그들의 성향에 비추어 볼 때 단기선교는 매우 효과적이다. 지금까지 통계로 보면 단기선교에 2~3회 참여한 젊은이들 가운데 60~80%가 장기선교사로 전환한 것을 볼 때 단기선교가 따로 선교의 동력화(Mobilization)하는데 매우 중요한 선교사역 형태이다. 셋째, 단기선교는 비

서구 교회들이 손쉽게 세계 선교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넓히는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선교의 흐름이 서구의 선진국 중심에서 비서구 중심 3국가 선교로 그 중심권이 옮겨가는 것을 볼 때에 이 운동의 활성화는 선교운동에 매우 유용한 선교운동이다. 특히 세계 젊은이들의 문화의 보편화와

빈번한 국제교류, 한국의 경제성장과 경제활동의 세계화, 한국기업의 해외 진출, 중앙아시아, 러시아, 중국, 일본, 미국, 남미 등 520만 명의 한인사회(Diaspora)와의 선교연계성, 교회청년과 신학생들의 선교현장 체험, 인터넷 정보의 보편화와 Net-working 등으로 더욱 단기선교는 보편화 될 것이다. 한국 CCC의 경우 그동안 필리핀과 일본과 C국 등 매년 1~3천명의 대학생 단기선교 파송을 통하여 대학생들에게 선교의 Vision을 심었고, 약 1만7천여명의 대학생 단기선교 파송을 통하여 장기선교 사역의 가능성과 기초를 놓았다(김안산, 2000). 또한 한국 YWAM 역시 다양한 지역의 단기선교를 개발하여 장기선교사 지원을 효과적으로 확보해 나가고 있다. 그들은 "Target 2020" 선교전략을 세우고 실천하고 있다. 현재 그들은 우선 10년 계획으로 2,019명의 선교사 후보들을 양육하는데 우선순을 두고 있다. 그 외에도 IVF, 인터콥을 비롯한 선교단체와 사명의교회, 온누리교회 등을 비롯한 많은 교회 대학원부가 단기선교를 활성화하고 있다. 특히 춘천 IVF 일본단기선교팀(김진현교수)은 10년간 매년 10개월간의 강도 높은 언어, 문화, 성경, 전도의 훈련을 통하여 한국의 선교단체 중에서 가장 높은 비율로 전도성매를 맺고 있으며 단기선교에 기간이 되고 있다. 앞으로 다가올 세계선교의 흐름속에 한국의 막대한 대학생 청년 선교자들과 신학생 교육을 받고 자란 신세대들이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 아래 현실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려는 그들의 성향에 비추어 볼 때 단기선교는 매우 효과적이다. 지금까지 통계로 보면 단기선교에 2~3회 참여한 젊은이들 가운데 60~80%가 장기선교사로 전환한 것을 볼 때 단기선교가 따로 선교의 동력화(Mobilization)하는데 매우 중요한 선교사역 형태이다. 셋째, 단기선교는 비

“물과 같은 삶”



이범천 피터장로
(전 국가장로대학원장)

물은 생명의 소리요, 존재의 소리요, 영원히 살생하는 자의 소리라고 헤르만 헤세는 설과 하였습니까. 그렸습니다. 물은 진정 위대한 생명의 소리입니다. 물! 인간의 삶 속에서 물보다 더 귀중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 몸속에는 물(H₂O)이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구상의 모든 생물들은 물에 의해 존재하고 생육하고 있음은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실이 아닙니까. 그런데 요즘 물 부족으로 인한 인류의 재앙을 경고하고 있고 이미 물부족으로 인한 국가간에 전쟁이 아프리카와 중동지역에서 시작되어 그 심각성을 더해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도 물부족 국가로 분석 평가되고 있는 사실을 우리는 확실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필자가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형이상학적으로 물이란 무엇이며 그 본질과 존재를 규명하고 그 대척을 강구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형이상학적인 물, 그 자체의 본성을 살펴

보면 그 속에 자신을 비추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의 우리들은 너무나도 패역하여 창조주 하나님께서 지으신 삼라만상 즉 지구의 환경물 부처부처간에 파괴하고 있음은 물론 도덕과 윤리가 땅에 떨어지지 오래이고 자신밖에 모르는 극도의 이기주의와 탐욕에 빠져있고 사회 제반의 질서를 무너트리고 자신의 영달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막대한 세대에서 “소금과 고모라”와 같은 하나님의 노여움이 두려워지고 있는 오늘날이고 보면 지금 거 말하고자 하는 “물과 같은 삶”은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시리라 확신합니다.

첫째, 물은 공명을 다루지 않습니다. 물은 생명이지만 아니라 우리 생육을 수를 필수적인 것으로 많은 유익을 주고 있지만 한번도 그 공로와 명예를 요구하지 않고 공명을 탐하지 않습니다. 둘째, 물은 겸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높은 벼슬과 지위를 얻고자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 하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하지만 물은 언제나 낮은 곳으로만 흘러가면서 이 세상 더러운 모든 것이 씻어지고 주고 물레방아도 돌리고 수력발전도 하는 등 헌신과 봉사를 다하는 모습과 겸손의 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셋째, 물은 질서를 지킵니다. “流水不爭先(유수불쟁선)”이라, 흐르는 물은 앞을 서려고 하지 않습니다. 즉 물은 창조주의 질서를 반드시 지키며 성급하지 않고 항상 여유를 가지고 순리대로 유유히

흘러 대해에 도달합니다.

넷째, 물은 자연의 섭리에 순종합니다. 물은 창조주 하나님에게 순종하여 흐르다가 막히면 조용히 기다릴 줄도 아는 지혜로움과 여유를 가졌으며 또한 물은 어떤 그곳에 담라도 그 그곳에 맞는 모양으로 순종하여 화합을 기합니다.

다섯째, 물은 사랑과 자비와 화평을 실천합니다. 물은 자신을 한달의 밀알로서 헌신하여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고 생명을 구하여 이 땅과 더럽혀진 것으로 사랑과 자비로 모두 받아드리고 용서하고 용해하여 서로의 다툼이 없는 화평과 평강을 도모합니다.

여섯째, 물은 그 본성이 변하지 않습니다. 물은 한겨울 추한에는 얼음으로 변하기도 하고 또한 눈으로 변신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름에는 수증기로 증발하여 구름도 되고 때로는 이슬비와 안개가 되기도 하지만 물은 결코 그 본성을 바꾸지 않고 반드시 물로 다시 돌아오니 이것이야말로 신의와 지조의

절개가 아니겠습니까.

일곱째, 물은 어려움을 만나면 더욱 강해집니다. 물은 한없이 부드럽고 약한 것 같지만 결코 좌절하지 않고 굴하지 않으며 어떤 어려움과 시련이 닥쳐도 그때마다 지혜롭게 눈비와 열음으로 되어 난관에 대처하면서 더욱 강건해지는 것이 또한 물이 아니겠지요. 오늘날의 우리는 무엇 때문에 물과 같은 삶을 살 수 없을 까? 자문하소서.

上善若水(상선약수) 즉, 최상의 선은 물과 같은 것이라고 하는 이 진리가 나의 것이 되어 우리의 모습들을 보고 배우는 후손들에게 자연의 위대한 철학자인 물의 삶을 터득케 되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특히 우리 주님께서는 일찍이 물과 같은 귀한 삶을 살았 것이 아니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서로 독자 여러분께서도 물과 같은 삶을 통해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귀한 삶을 영위하시기를 주선으로 기원합니다.

성시만평



▲ 영생으로 이끄는 지성의 딸...

Discipleship Training Course

예수제자훈련코스

예수전도단(Youth With A Mission, Korea) 춘천지부가 마련한 DTC(Discipleship Training Course)은 하나님의 성령과 원리 원리를 배우고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오는 것, 모임을 통해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기를 원하는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예수전도단 소개) 예수전도단은 예수그리스도께 헌신한 모든 세대들을 통하여 복음을 열방에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며 136개국, 650여개 지부에서 1만2천여명의 전일사역자와 선교활동을 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은 16개 지부와 열방대까지 650여명의 전일사역자와 260여명의 선교사들이 해외에 파송되어 사역하고 있습니다.

- ▷ 강의내용: 하나님/독성/예배/중보기도와 영적전쟁/내적치유/헌신/선교와
- ▷ 모집대상: 예수님의 제자로 훈련받기 원하는 직장인 및 일반인
- ▷ 모집인원: 40명 (신청서접수 후 선착순)
- ▷ 모집기간: 9월 25일(수)부터 12월19일(목)까지 13주간
- ▷ 모집시간: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 오후 5시
- ▷ 모집장소: 베드로교회(베드로교회) 5층
- ▷ 등록비용: 25만원(장비비, 식비, 간식비 포함)
- ▷ 입학금: 200207-02-048621(예금주-김진현)
- ▷ 접수: 예수전도단 사무실에서 신청서를 받아 접수 또는 화요일오전 신청서를 받아 접수(☎연락처: 200-962 춘천시 후평3동 831-11호 302호 예수전도단 DTC 담당자 앞)
- ▷ 문의: TEL 241-1067 / E-mail: hcfm@ywamkorea.net

퍼스펙티브스 훈련 안내

“세계기독교운동들을 위한 퍼스펙티브스”(Perspectives on the World Christian Movement) 15과로 구성된 역동적인 선교훈련 프로그램입니다. 선교사, 목사, 선교전도기 등 다양한 사람들을 위해 기르지는 과정입니다. 대학 입학 이후 과정에 해당되는 이 프로그램은 통해 참가자들은 현재기부터 계속까지 나 타난 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목적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훈련 4가지 관점을 배우게 됩니다.

- ★성경적-영감을 향한 하나님의 제의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을 계시하는가?
- ★역사적-하나님께서 역사를 통해 어떻게 일해 오셨는가?
- ★문화적-하나님의 세상을 향한 목적이 문화는 어떻게 적용되는가?
- ★전략적-당신과 당신의 교회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

- ▶일시: 2002년 9월 2일(월) ~ 11월 11일(월)까지 12주간
- ▶월요일 오후 1시부터 ~ 오후 8시까지
- ▶장소: 강원대학교
- ▶주관: 선교한국
- ▶주최: 춘천퍼스펙티브스 준비위원회, CCF.
- ▶신청방법: 춘천성서회 홈페이지(www.seeds21.net)에서 등록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 후 팩스로 첨부서 cc_cp@hanmail.net으로 보냅니다.
- ▶참가비: 15만원 (식사제공)
- ▶입금: 200207-04-628284 / 농협 172967-51-054681(예금주-김종호)
- ▶등록비: 8월 10일(토)
- ▶교재: “미션퍼스펙티브스(예수전도단 출판부)” 교재는 별도구입(훈련중 구입시 25,000원)
- ▶문의: 011-9731-9812 (김성진 간사)

2002' 가을학기 흥천 DTS

한국 예수전도단은 1960년 미국 남장로회 선교사로 한국에 온 오대원 선교사(David E. Ross)에 의해 1973년 설립되었습니다. 젊은이들로 하여금 효과적으로 세계에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로렌 킹필드 목사에 의해 1960년 설립된 국제 YWAM과 1980년 연합하여 Youth With A Mission, Korea)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중 열방대인 DTS(Discipleship Training Course)는 12주의 강의와 1주의 전도 및 선교훈련을 통해 이루어지는 집중적인 예수제자훈련 과정입니다. 이 시대에 주께 헌신한 그리스도인들을 삶 속에 성경적인 원리 원칙들을 제공함으로써 온전한 생명을 개발하도록 하며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이루어 친밀 제자로 변화된 삶을 살며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훈련합니다. DTS(Discipleship Training Course)는 매년 2, 강도 높은 훈련지역에 훈련학교를 열고 있으며 많은 분들과 함께 훈련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 (흥천DTS) 2002년 가을학기 원서접수 안내 -

- 2002년 가을학기 기간: 2002년 10월 4일(금) ~ 2003년 3월 7일(금)까지
- 내 용: 12주간 강의 / 전도여행 10주간
- 강의비: 175만원 (★전도여행비 별도)
- 원서접수 안내
- 원서 다운로드: http://www.uofniju.org http://dts.hanmam.com
- 원서 보내실 곳: 250-845 강원 춘천 내면 자운2리 산 149-2 흥천DTS
- 원서 접수마감: 2002년 7월 31일(수)까지
- 총 접수비: 1인 25,000원 / 부부(2인) 35,000원 (원서비 포함)
- 접수비 송금계좌: 후계계좌 200717-02-048318 (예금주-최익관)
- 전일제원리 및 장소: 원서접수 후 개별문서 (8월중순 예정)
- 문의: ☎ 033)432-5961 FAX 033)432-7051
- E-mail: hcdts@ywamkorea.net / hcfm@ywamkorea.net